

Archstudio

_ 탕산 유기농 농장 & 북경 티 하우스

Archstudio _ Organic Farm in Tangshan & Tea House in Beijing

글. 이지현_ Lee, Jihyun
jihyun.lee815@gmail.com

이번에 소개하는 팀은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젊은 건축사 Han Wenqiang이 이끄는 스튜디오인 Archstudio의 작업들이다.

첫 번째 작업은 중국, Hebei주의 Tangshan에 위치한 유기농 농장(Organic Farm)이다. 도시 문맥적으로 볼 때 도시와의 상관성, 전통과의 상관성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중국의 전통적 주거 유형인 중정집(courtyard house)을 주제로 택하였다. 물론 이 주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농장(또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들의 특성 때문이다. 일단 농작물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제분하고, 오일을 짜내고, 이를 포장하는 단계 까지 각자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하면서도,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공정끼리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정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구조가 잘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각의 매스가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하나의 매스와 다른 매스의 지그재그 배치로 인하여 크고 작은 중정을 형성하였다. 이는 자연환기가 잘 될 뿐더러 자연광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충분한 자연광은 이러한 다속적인 중정의 존재 뿐만 아니라 탁월한 재료의 선택, PV board(폴리카보네이트 보드)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organic farm



Tea House in Hutong

주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 역시 간단명료하다. 전통적으로 지붕을 만들던 방법인 Truss로 응력을 받는 곳에만 선적으로 Timber 부재를 쓰고 각각의 부재를 이어주는 곳마다 철재로 된 joint로 이었다. 같은 구조 부재가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듈의 크기와 높이를 조정하였다.

또한 둘러싸는 재료로 반투명한 플라스틱 계열의 PV 보드를 사용한 것은, 시공비와 시공성, 그리고 간단성을 추구한 좋은 결과물이 아닐까 한다. 지붕은 전통적인 지붕을 마감하는 방식인 Slate를 차곡차곡 쌓아서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도록 하였다.

Timber 구조를 땅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 건물을 땅으로부터 띄워서 마치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60cm의 시멘트 단을 주었는데 이로부터 별도의 바닥마감을 하지 않아 바닥 마감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느낌은 다른 주요 재료, Timber와 플라스틱 보드와 꽤 잘 어울린다.

두 번째 작업은 베이징의 Hutong House를 리모델링해서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든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보존되고 있었던 베이징의 Hutong에 위치해 있는 벽돌로 된 중정집에 약간의 건축적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감성적인 Tea House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후통(Hutong)이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구 성내를 중심으로 산재한 좁은 골목길을 일컫는 말로써 전통적 가옥 건축인 쓰허위엔이 후통에 많이 접하고 있어, 베이징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베이징의 거리는 보통 이러한 낮고 좁은 벽으로 둘러싸인 길로 이루어져 있고 화북지방의 전통 가옥 건축양식인 쓰허위엔을 둘러싸고 있는데, 쓰허위엔은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주출입구와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가옥 양식이다. 물론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후통과 쓰허위엔은 재개발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으나 많은 건축사들이 이를 리모델링하여 과거와 현재를 공존하게 하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Tea House 프로젝트 같은 경우, 공간적인 레이아웃으로 보면, 후통의 낮고 긴 공간감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석고 벽체 등을 기존의 벽체와 평행하게 배치하면서 더 긴밀한 공간감을 창출해 내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더 작은 중정을 만들어서 대나무 같은 식재로 채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두운 색의 벽돌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벽돌을 하얀색으로 처리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의 소극적임과는 대조를 이루며 현대적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폐쇄적이고 정적인 공간감과 달리, 벽을 낮게 깔고 서로의 공간이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침착한 개방감과 친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개의 프로젝트이지만 이 두 작업에서 보이는 Archstudio 태도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건물의 공간을 생각함에 있어서 유기적 곡선이나 비정형을 사용하는 등의 형태적 “새로움”이 아니고 비율이나 공간의 연계성, 그리고 주구조체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장소에 언제나 있었던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적이고 참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디자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합리성”이 아닐까.

결국 무언가가 아름답다고 인식되는 것은 각각의 문맥에 얼마만큼 적합한가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일 것이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주거, 사무 또는 작업 공간이던 상관없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과 기능에 적합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즉 시공을 하기 편하다던가, 주변에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운반비를 줄일 수 있다던가, 작업하기 용이한 건축적 디테일로 설계했다던가, 시공비의 적절성 등이 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합리적이라면 그것이 작업의 성공적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들의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물론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항상 자신들의 정체를 물어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읽히는 것처럼,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세계 곳곳의 건축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